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진보이데올로기인 인권운동은 공세적 운동

서준식(대표, 운영위원장)

인권운동은 지극히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면서도 '보편적 인권'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극지성(極地性)에 매몰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역동해 왔고 앞으로로도 역동해 갈 '인권'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경직되지 않을 '진보이데올로기'이다. 나는 이런 인권운동이 나의 '자생'의 노력을 위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좋은 자리라고 느끼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구현하려는 인권운동은 오늘도 실은 내부에 엄청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보편인가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낡은 개념을 인권의 진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인권운동은 오늘도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일치시키려는 그 어떤 기도도-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곧 '보편적 인권'의 실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보편적 인권'을 독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계에 계급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 인권'의 이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을 없애자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 이념의 실현을 향해 열려 있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리하여 계급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인권이론은 사이비 보편주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의 이해에도 이용당하지 않을 순결성을 간직하되 계급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권운동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고자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인권' 개념은 '천부'의 것으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역동하는 '진보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어진 '인권'을 수호하기만 하는 방어적 운동은 결코 아니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의 구현을 늘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할 창조적 운동이며 따라서 공세적 운동이다. 나는 수많은 소외된 대중의 해방과 찢겨진 조국의 통일이라는 나의 인간적 소망이 담긴 인권운동을 강조해 나가고 싶다.

원래 허망하게 자멸하지 않기 위하여 기울이는 '자생'에의 노력은 항상 그 과정에 자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금욕의 아픔'에 익숙해 있는 나는 아마도 자멸하지 않고 다시 커다란 삶으로 자신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인권운동과 함께 앞으로 향하고 있는 한은...

-일본어 저서, 『자생의 정열』에서

사람사랑 머릿글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사랑방 성원과 함께 고민할 일과 주장을 보내주시면 우선적으로 싣겠습니다.

사 업 보 고

(11월 셋째주~11월 다섯째주)

□ 12월10일부터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 서비스 개시 □

- 하이텔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보자료실은 (주) 화엄정보통신과 계약상의 문제들을 모두 해소하였고, 최종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의 <인권하루소식>을 준비호부터 모두 해체시켜 일일이 주제어를 넣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매우 구체적인 실무작업만 끝나면 곧바로 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오는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통하게 됩니다.

- 통신 서비스는 하이텔에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GO HNEWS로 하면 직접 연결됩니다.

□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성과리에 끝나 □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을 비롯한 9개 단체가 공동주최하였던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인권하루소식> 참조).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란 주제하에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 국가보안법이 실제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법체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철폐투쟁에 대한 연대활동이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 이 심포지엄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자료실로 전화주십시오.

□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사건

진상규명 공대위” 참가 □

- 최근 이른바 부연간첩과 관련하여 불고지 혐의로 이인영씨등 3명이 구속되고, 회합통신 혐의로 전국연합 박충렬, 성남미래 준비위원장 김태년씨등이 안기부에 구속된 데 이어 29일에는 범민련 관계자 29명이 일시에 안기부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간첩관련 사

건에 대해 재야와 인권단체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 11월30일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단체는 ‘총선시기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기에 우리도 함께 가입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월1일자 참조)

□ 하루소식 합본5호 12월10일경 출판 예정 □

- <인권하루소식> 합본5호가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경 출판됩니다. 이번 합본5호에는 95년 5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410호부터 500호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수록됩니다.

- 이 합본5호 권두언은 강경선(운영위 부위원장)교수님이 95년 인권상황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또, 부록으로는 합본5호 색인과 1호부터 5호까지의 주요색인을 수록합니다.

- 운영·자문위원님들께는 합본5호를 보내드립니다. 여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인권홍보실에 주문해 주십시오.

□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민간보고서 제출, 좋은 평가 받아 □

- 교육실장 류은숙씨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지난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유엔아동권실무분과회의에서 인권운동사랑방등 아동관련단체들이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 보고서를 사전 심의하여 오는 96년 1월 열릴 본심의에서 다룰 질문을 정리하는 사전준비회의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어린이 권리연대회의」는 오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성공회대 사회실습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교과내용에 따라 사회단체에서 주 1회, 10주동안 총 40시간을 봉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5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 교육실에서는 부랑인의 인권문제 워크숍을 공개강좌 때 진행했고, 자료들을 묶었습니다.

□ 강기훈 인권정보자료실장이 지난 30일 득남했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재정보고

(95년 11월 1일 ~ 15일)

- * 전기이월 : -2,171,328 * 수입총액 : 1,568,328
 * 지출총액 : 2,298,680 (결산잔액 : -730,352)
 * 최종결산 : -2,901,680 원

항목코드	항목명칭	수입	지출
01-01	회 비	680,000	0
01-02	구 독 료	809,400	0
01-03	후 원 금	0	0
01-04	사업 수익	78,700	0
01-05	은행 이자	228	0
01-06	차 입 금	0	0
02-01	활 동 비	0	465,000
02-02	사 업 비	0	1,159,900
02-03	발 송 비	0	200,430
02-04	사무 비품	0	202,000
02-05	사무실유지	0	110,710
02-06	출 장 비	0	36,900
02-07	식 대	0	123,740
02-08	차입금상환	0	0
02-09	전화요금	0	0
02-10	기 타	0	0

* 11월부터 회계정리를 지로 정리 관계로 매월 15일에 맞추어 합니다.

인권정보자료실 기금마련전 재정 종합보고

* 수 입				32,853,660
① 티켓수입	21,580,000	② 후원금	540,000	
③ 당일 현금수입	1,093,660	④ 잔고정리	360,000(술 19만원, 과일등 19만원)	
⑤ 합본호 판매	160,000	⑥ 맥주판매	30,000	
* 서화 판매 수익	9,100,000			
* 지 출				8,611,160
① 문구류등 물품구입	235,930	② 차비 및 운반비	394,600	
③ 식비	87,500	④ 안주재료비	2,385,100	
⑤ 술(840병)	1,011,050	⑥ 인쇄비(초청장, 티켓)	460,000	
⑦ 발송비	61,440	⑧ 판넬제작비	534,000	
⑨ 티켓구입	140,000	⑩ 초대가수 2명, 장비	400,000	
⑪ 장소대여료	800,000	장소 문짝 배상비	100,000	
⑫ 서화도록 작성비	155,940	⑬ 인쇄물	1,430,000	
⑭ 기타	355,600			
* 잔액				24,252,500

<지 출>

- * 사무국 부채 변제 6,300,000 * 자 료 실 15,000,000
 * 총 잔 액 2,952,500

재정사업의 수익 중 자료실 디베이스 구축 재원으로 1천만원과 자료 구입비로 5백만원을 적립하기로 하여 자료실에 총 1천5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자료소식

지난호에 이어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와 내무위원회 자료들을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는 외무·통일, 교육위원회의 자료가 실릴 예정입니다.

◎수사기간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현황 3쪽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각각에 대한 위반 사건 관련 3쪽

1)94.1-95.8 구속영장 청구원인과 기각인원 및 기각률

2)기소건수와 인원을 연도별, 죄명별 분류

3)기소대비 확정 판결에서 실행 선고 인원과 비율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 4쪽

◎통일대비, 사법제도 연구 실적 4쪽

◎최근 2년간 법원별 판사1인당 본안 판결 건수 3쪽

◎구속적부심 및 보석청구 사건의 처리 현황 (지난 2년간의 추이) 15쪽

◎구속영장 발부 신청의 각 지원별 총 건수와 기각건수 (지난 2년간의 추이) 6쪽

◎94.9-95 현재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현황 14쪽

◎대법원 하급심 판결 파기 환송 현황(최근 3년간 법원별, 민·형사별 건수 및 파기비율) 8쪽

<내 무위>

◎경찰제도 개선관련 연구결과(요약) 3쪽

◎일제 검문검색이 노력보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1쪽

◎90-94구속된 출판인 현황 관련 (구속자인적 사항,구속사유 등) 3쪽

◎서울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 설치근거 및 현황(구성원, 조직체계 등) 2쪽

◎95.1.1-8.31까지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각 경찰서별 현황과 기각건수, 기각사유 2쪽

◎강압수사와 관련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3쪽

◎금서목록 관련 94.1-현재까지 전국 서점에서

압수한 도서 현황 5쪽

◎95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요원 숫자와 평균근무기간 및 피교육자 인원수, 교육과정(특히, 수사형사실무교육, 감식교육 및 인권보호교육)현황 2쪽

◎제주지방경찰청 관할 보안(요시찰인) 관찰대상자 동향 파악 현황 3쪽

◎'95년 9월 전국 각 경찰서별 피의자 유치 현황(수용규모, 기준 등) 9쪽

◎94년 연행자 처리 현황 3쪽

◎94-95년 각 시·도의 월별·유형별 시위현황 및 병력 동원수, 검거자수, 검거자 처리내역 5쪽

◎경찰서 유치장 환경 조사표(경찰서명, 운동시간방법, 공간면적, 1일평균수용인원, 신문잡지구독방법, 침구류·의류세탁기준) 14쪽

◎검찰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5쪽

◎94.1이후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내역(인적사항, 형량, 구속일시, 교도소) 1쪽

◎각 지검, 지청의 인권상담소 운영 현황 2쪽

◎90년 이후 검찰국 인권옹호과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수리한 사건부 사본1부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7쪽

◎93.2.25부터 자료요구시 까지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으로 고발된 사건수와 이중 기소된 건수, 기소유에 건수, 공소권없는 건수, 현재 수사중인 건수 1쪽

◎검찰청 송치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93.2.25-95.9.18) 9쪽

◎안기부 송치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93.2.25-95.9.18) 5쪽

◎긴급구속장 발부와 관련하여 3쪽

1>94.9-95.9이후 지청별 발부 현황 통계

2>처리결과 및 영장기각률

3>긴급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건 현황

◎대용감방에 대한 감찰보고서 2쪽

◎94.1-95.9 패소현황 및 원인 분석결과 보고서 6쪽

◎94.1-95.9 년도별, 지검별, 영장청구 건수와 기각현황 및 기각 사유 4쪽

◎94.9-95.8.31 무혐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 1쪽

◎이상길 의경 변사사건 2쪽

◎94.9-95.9 현재 법무부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리한 사건부 사본 1부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 3쪽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더 큰 걸음의 새해를 맞기 위하여

95년 한 해를 마감하며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95년! 사건도 많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참혹한 현장에서 개발독재의 반인간성의 종말을 확인했고, 검찰의 5.18불기소 결정을 뒤엎고 국민의 불복종운동으로 5.18특별법이 제정되게 했고, 원한과 증오, 분노의 대상이었던 전두환·노태우 80년대 최고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새삼 되돌아 보게 됩니다.

오랜 준비위원회(?) 끝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묶어 정식 결성을 했던 날로부터 8개월 넘게 여러분의 지도와 도움으로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오류도 많이 저질렀지만, 이제는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을 갖추고 보다 발전된 인권운동의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방 사무국 성원들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이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애정적인 결함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전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굴러간다고 할 때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사무국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전문화·대중화·국제화라는 사랑방 목표를 향해 내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꺾어주어 주시고, 지도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애정이 듬뿍 담긴 비판과 사무국이 여러분 결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인권운동사랑방은 더 큰 걸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6년에는 보다 함께 큰 걸음을 함께 내딛을 때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도약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5년 12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 드림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안내 □

- 일시: 95년 12월 21일 오후7시
- 장소: 진미식당(☎ 713-2161)(지하철 4호선 4번출구 서울역 방향 100미터, 사무실에서 남영동 방향으로 100미터)
- 참가대상: 운영위원, 자문위원, 사무국, 자원봉사자, 모니터 요원, 지방통신원, 인권하루소식 독자 등 인권운동사랑방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모든 분(가족 동반 환영)
- 문의: 노태훈 실장(☎ 715-9185)

* 강경선 부운영위원장의 출국 환송연도 겸해서 열립니다.

사업보고

(12월 첫째주~12월 둘째주)

☐ <인권정보자료실> p-c 통신상

서어비스 드디어 시작 ☐

-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오던 p-c 통신상 서어비스가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서 12월 10일에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 지난 12일 화엄정보통신과 정식 계약을 하고 Hitel 상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접속방법은 '이야기 통신프로그램'에서 01410을 접속한 후 oland를 입력하면 열린통신이 접속되고 이중 '3' 인권정보/상담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itel의 I.D 가 없어도 01410 Top 메뉴에서 그냥 접속이 가능하며 내년 1월 부터는 01410을 접속한후 곧장 "hnews"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 통신서어비스는 1.인권하루소식, 2.인권자료, 인권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인권하루소식서어비스만 가능하며 내년 2,3월경부터는 전체가 서어비스됩니다.

☐ 서준식 대표 1월 16일 귀국 확정 ☐

- 지난 2월에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출국하여 미국의 시애틀에 머물던 서준식 대표가 1년간의 해외체류를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경험으로 재무장한 서대표의 저력있는 활동을 다시금 기대해 봅니다.

☐ 강경선 운영위 부위원장

96년 1년간 인도 유학 ☐

- 95년에 사랑방의 새로운 조직체계변동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아 서준식 대표를 대신해 사랑방을 이끌어 온 강경선 교수(방송대 법학과)가 인도의 뉴델리 대학에 교환교수로 1년간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운영, 자문위원 확대 ☐

- <인권운동 사랑방>의 운영에 전박적인 책임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민변회원)과 이상영

교수(충북대 법학과)가 추가로 선임되었으며,

- 자문위원으로는 류중원 변호사님이 추가로 선임되었습니다.

- 한국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새로 선임되신 운영, 자문위원님들의 새로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보고서 심사

실무회의 결과보고 기자회견 가져 ☐

- 지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 인권센터에서 열린 위 위원회에 참가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권리 연대회의'의 대표단의 활동의 결과 등 위원회에서 35개항의 추가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 민간단체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지 유엔 전문가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정보를 담았다는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본심사가 열리는 1월까지 추가정보를 담은 독자적인 민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자세한 정보나 자료를 원하시는 운영·자문 위원님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 '인권 10대 뉴스' 선정 작업중 ☐

- 지난해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되어 제도 언론과 인권운동진영에 큰 호응을 받았던 '인권10대 뉴스' 선정을 올해도 변함없이 시도키로 하였습니다.
- 선정 방법은 올해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를 약 100여가지를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이 선정하여 이를 인권하루소식독자중 변호사 30명, 교수, 연구자 30명, 단체 상근활동가 30명, 일반 시민 30명에게 발송하여 가장 많이 추천되는 10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올 한해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번 작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자원봉사자들 늘고있어 ☐

- 사무국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조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던 안혜미씨가 국제연대를, 대학 졸업후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고자하는 김은정씨가 자료실 및 연대실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사무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비상근 인력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후속사업으로 해외참가자들의 발제 및 토론내용 평가토론회 갖기로 □

-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리고 해외참가자 4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국제심포지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하여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주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한 재숙지 및 평가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나 이번 행사가 국내 인권운동의 전적으로 인적, 재정적 힘만으로 조직된 처음의 중·대규모의 국제행사였고 외형상 잘 조직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었던 국제행사를 진행하느라 주요 인권활동가들이 토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다는 실행위원회의 내부평가에 따라 그 성과를 국내인권운동에 반영시키기 위해 개최되는것 입니다.

- 바쁜 일정상 본행사에 참석하지못한 운영·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간과 장소는 12월 21일(목) 오후 4시-6시, 동승동 사회교육원에서 열립니다.

95-12분기 재정보고(11/16-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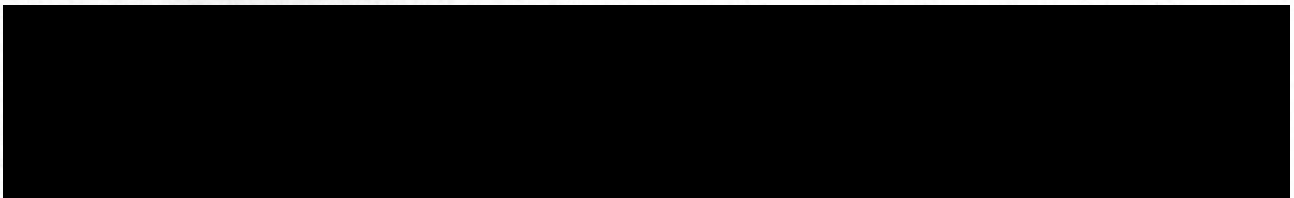
* 전기 이월금 - 2,901,680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2,929,280	활동비	3,245,000
자문,운영위원회비	2,630,000	통신요금	931,912
후원금	380,000	사업비	453,550
은행이자	4,860	사무비품	751,200
기타수익	4,323,500	사무실유지비(집세포함)	506,720
(기금마련전 잔액 이체포함)		발송비	428,620
		야근자 식대	377,300
		기타 잡비	21,770
계	10,267,640원	계	6,716,072원

* 잔액 649,888 원

* 기금마련전에 노력해주신 모든분들의 노력 덕택으로 만성적 마이너스 재정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자 료 소 식

지난호에 이어 국정감사 외무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자료들을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는 교육·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들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 자료>

◎주한 미군범죄행위에 대한 현황, 3쪽

1>미군 범죄행위 현황

2>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비용

◎미국의 주둔국별 유지비 현황 및 사용내역, 1쪽

◎한미행정협정 개정 관련 사항, 3쪽

1>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현황(외국과 비교)

2>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향후 대책

◎한미행정협정상 의 문제점(타국과의 비교) 및 대응방향, 3쪽

◎미국의 한국내 무상사용 재산문제, 2쪽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실태 조사 보고서, 2쪽

◎94-95년도 주한미군 분담금 및 미국의 요구 내역, 1쪽

◎90년 이후 한국인 대상 미군범죄 관련 2쪽

1>연도별 및 유형별 미군범죄 발생 건수

2>연도별 미군인 재판권 행사 사건 재판결과

◎미국의 주둔 국가별 유지비 현황 및 사용내역(년도별), 1쪽

◎뉴욕타임즈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레이니 대사 회견문, 4쪽

◎95년 9월 북경세계여성회의 관련, 129쪽

1>94년6월28일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사무국에 제출한 나이로비 전략 이행사항 국가보고서

2>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3>우리 정부 대표단 연설문,보고서

◎한국,일본,러시아 3국 동해 핵폐기물 조사, 3쪽

◎북한 이번 수해 규모와 피해정도(유엔조사단 조사내용), 1쪽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외무부의 사업, 1쪽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기구나 회의, 혹은 관련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제기 및 조

치내용, 2쪽

◎별목공, 유학생, 탈주자들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 2쪽

◎유엔에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38쪽

1>우리측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해 유엔 측의 94.6.30자 질의서 전문

2>1항의 질의서에 대한 우리측의 답변 전문

3>우리측 제출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여부 및 그 세부내역

◎94년 이후 현재까지 유엔 각종 기구와 회의,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우리 정부가 지적받았거나 항의를 받은 결의 및 권고의 수나 내용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 노력, 2쪽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11쪽

1>최근 해외투자 현황(년도,산업,지역별)

2>주요 노사분규 발생 현황(국가)

3>현지언론보도 등

◎재외공관 노무관리 활동지침(안), 3쪽

◎해외진출 기업 현황 노무관리 실태 및 대책, 4쪽

◎해외진출기업 노무 관리 합리화 지원 대책, 7쪽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책, 1쪽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조약체결 현황, 8쪽

<교육위원회 자료>

◎교육재정관련(GNP 5%확보 교육재정중 정부측 부담계획,연차별 추가재원 조달계획등), 2쪽

◎장애인 교육관련 (장애유아교육 실태 및 대책, 장애인학교 신설,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등), 4쪽

◎각급학교 학생의 범죄 유형별 형사입건 현황 및 조치 현황, 1쪽

◎각급 학교의 비행 유형별 비행현황 및 조치 현황, 1쪽

◎각급학교의 자살현황, 상담실 운영현황 2쪽

◎각 시·도교육청별 '95년 및 '96년 폐지예정 학교수, 1쪽

◎82-95.8 현재 전국 각시·도 교육청별 폐교수, 임대,매각교 수 교육시설 및 문화공간 활용, 방치 현황, 3쪽

◎중고생 흡연 현황 및 대책, 2쪽

◎학교급식관련 예산지원 현황, 2쪽

◎연도별 급식학교 현황